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오늘 개막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서… 첨단 기술·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가득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혁신과 미래 비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盛大하게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농촌 분야의 대표 종합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국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농촌 혁신이 만드는 성장과 행복”을 주제로 △농업의 혁신 △농업과 삶 △색깔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 등 4개 테마관을 마련한다. 각 전시관에서는 첨단 기술과 생활 속 농업의 새로운 모습, 다채로운 체험과 풍성한 부대행사를 통해 관람객과 만난다.

특히 ‘농업의 혁신’ 관에는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을 비롯해 친환경 수소프트웨어, 공기주입식 스마트팜, AI 선별로봇, 조리로봇 등 최신 농업혁신 사례가 대거 전시된다. ‘농업과 삶’ 관에서는 올해의 농산물로 선정된 감자를 주제로, 재배기술·가공식품·굿즈 전시와 더불어 감자 심기, RC가 수확 체험, 감자탕 챌린지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또한 ‘색깔있는 농업’ 관에서는 케이푸드(K-Food)의 세계적 인기를 반영해 전통주, 라면, 냉동김밥, 소스류를 전시·판매한다. 전국 전통주를 한자리에 모은 ‘우리술 라운지’에서는 청년 소믈리에가 시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음식 페어링 클래스도 마련된다.

‘활기찬 농촌’ 관에서는 귀농귀촌, 청년 창업, 농촌 위계이션 등 활력 넘치는 농촌의 미래를 엿볼 수 있으며, 청년농·창업 대표가 직접 들려주는 토크쇼 ‘청년마이크’도 3일간 열린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2025 NEW AG WAVE’ 학술대회에서는 AI 농업, K-푸드의 확장 가능성 등을 주제로 세계 농업의 미래를 논의한다. 협촌

사진 공모전, ‘이그리 테드’, 미래농촌 사생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특별 장터에서는 청년농과 6차산업 인증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농식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에서도 농산물과 한돈품을 통한 기획전이 동시 진행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는 농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고, 농촌이 균형 성장을 이끄는 미래상을 보여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누리집 사전등록 또는 현장 등록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나섰다.

전통시장 장보기·나눔 활동 펼쳐

전주상의, 지역 상인에 활력·취약계층에 따뜻한 온정 전달

전주상공회의소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나섰다.

전주상의는 24일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열고, 전통시장 장보기와 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상의 의원단과 임직원 3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온정 어린 손길로 마련한 물품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선녀머 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 참여와 소비 위축으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

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명절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장을 보는 시민과 상인들의 정겨운 웃음으로 활기가 넘쳤고, 나눔의 물결이 따뜻하게 퍼져 나갔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상의는 추석을 맞아 선녀머 복지관을 비롯한 3개 복지기관에 총 800여만 원 상당의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Bravo Korea 고객센터’ 1주년 기념행사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외국인 고객 전용 서비스 강화의 상징인 ‘Bravo Korea 고객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은행 외국인본부 정상훈 부행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상훈 부행장은 축사를 통해 “Bravo Korea 고객센터는 지난 1년 동안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국인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16개국 언어로 진행되는 다국어 상담으로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 눈높이에 맞춘 ‘외국인 종합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Bravo Korea 고객센터는 △외국인 금융 상담 지원 △다국어 상담 체계 확립 △비대면 상담 영역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외국인 온라인 상담창구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전북은행의 외국인 전용 플랫폼 ‘Bravo Korea’와 연계해 대출, 예금, 체크카드, 해외송금 등 금융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공기업까지 사칭한 보이스피싱 기승

전북개발공사, 유사 피해 원천 차단 총력전

전북개발공사가 최근 타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업체에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교묘하고 악질적인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피해 예방 활동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나섰다.

사칭범들은 나라장터 입찰 공고와 계약 현황을 교묘히 활용해 낯선 업체를 특정한 뒤, 발주처 담당자인 것처럼 위장 전화를 걸어 사업 공고 내용

을 언급하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계약상대 업체에 금융상품 가입을 집요하게 권유하거나, 설명회 참석 및 개인 정보 제출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에 전북개발공사는 선의의 계약업체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돌입

했다. 계약업체들에는 안내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동시에 홈페이지 공지와 SNS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김대근 사장은 “전북개발공사는 계약과 무관한 어떠한 금융상품 안내나 개인정보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우리 공사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원천 차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2025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펼쳐

모래내·공설·북부시장 방문, 2000만원 상당 식자재·생필품 직접 구매 상인과 소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활력과 온정을 동시에 전했다.

24일 봉사단은 전주 모래내시장, 군산 공설시장, 익산 북부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총 2천만 원 상당의 신선한 식자재와 생필품, 제철 과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과 정겨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지속되는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 속에서 침체된 도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백종일 은행장과 전북은행노동조합



합용훈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장보기 후 구매한 물품을 지역 사회에 환원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군산경로식당, 익산 다리로움 나눔 공간 등 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영세 상인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을 동시에 실현하는 ‘일석이조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어려운 분들이 추석 명절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상생과 따뜻한 금융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청년농·농업인력 확보 해법 모색

K-농정협의체, 청년주간 맞아 농정소분과 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주간을 맞아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력 유지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최근 서울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서 ‘K-농정협의체’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열고 청년농업인력 육성 방안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K-농정협의체는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업·농촌의 현안과 미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려진 민관 협의체다. 이 중 농정소분과는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 인재 육성, 농업재해 대응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황희식 GS&J 대표가 소분과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회의에는 현장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위원들도 참여, 더욱 생생하고 실질적인 목소리가 오갔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 ‘청년농 법인취업 지원 제도’ 등 청년농업인력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인권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됐다. 위원들은 신규 청년농 유입뿐 아니라 기존 청년농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법인 취업을 통한 실무 경험 확대, 초기 자본 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 시설 매입·리모델링 지원, 실효성 있는 멘토링 제도를 위한 인력풀 확충 등 현실적인 방안이 제안됐다.

농업고용인력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수적 확대가 아니라 숙련된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